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현 · 임용무

광주보건대학 안경광학과

투고일(2009년 10월 31일), 수정일(2010년 3월 2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9일)

목적: 본 논문에서는 증가되는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문제점과 안경사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교육통계, 보건복지백서, 대학 알리미,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와 모집정원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였다. **결론:** 현재 배출된 안경사의 수는 과잉공급이다. 안경사의 과잉 공급은 안경사의 근로여건 악화와 직무만족도 저하 유발하고 따라서 그리고 잦은 이직과 타 직종으로의 전업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며 안경사 유관 기관들은 결집하여 정부의 인력정책수립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의 직무영역 확대, 질적 수준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은 안경광학과 학제의 통일과 입학정원의 축소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주제어: 안경광학과, 안경사, 입학정원, 수급

서 론

최근 대학들이 졸업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보건·의료계열의 학과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의료기사 관련 입학정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급 제어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¹⁾.

안경광학과와 경우 1984년 80명 정원으로 대구보건전문대학에 개설된 이후, 2009년 안경광학과와 개설 대학 수는 총 43개이며, 입학정원이 2,255명에 달한다²⁾. 현재 안경광학과와 학수년한은 2년, 3년, 4년이 공존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안경광학과와 증원현황은 Table 1과 같다. 5년간 평균 증가인원은 132명에 이른다. 2010학년도에도 양산대학(경북, 30명), 선린대학(경북, 25명), 전남과학대학(전남, 30명), 대구공업대학(대구, 30명), 충청대학(충북, 20명), 신성대학(충남, 30명), 대구 카톨릭대학교(경북, 30명)를 포함하여 195명이 증원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즉 유보정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과의 신력·증설과 관련하여 사범계와 함께 유일하게 규제가 남아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증원은 지

역별·직종별 증원 규모 협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 정원조정지침에 반영하여 대학에 통보(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신청 → 대학선정(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 해당대학 통보(교육과학기술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2001년에 마기중 등³⁾이 안경사의 인력공급 과잉에 대하여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인력수급에 관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안경광학과와 증원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경사의 수요공급을 예측하는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 동시에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원에 따른 문제점과 이의 해소방안에 관하여 제시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최근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 대학 알리미 정보와 교육통계연감, 보건복지백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광학과 입학정원과 안경사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그리고 과잉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Table 1. The increased number of new entrance student in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2005 year	2006 year	2007 year	2008 year	2009 year	2010 year	Total person
The increment number of person (assignment)	0	150	170	100	130	110	660
University	0	150	40	70	110	?	370+?
College	0	30	130	30	60	30	280
The increment number of person (an actual state)	University	0	150	30	30	30	270
	College	0	30	90	30	60	165
	Total	0	180	120	60	90	195

결 과

1.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원현황

1984년 대구보건의대학에서 안경광학과를 개설한 이후 2009년 까지 42개 대학(교)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2008년에 정원 내 입학정원은 2,190명이며 정원 외를 포함한 모집인원은 2,650명이며 실제 등록자는 2,292명이다²⁾.

Table 2에 안경광학과를 설립한 년도 이후 정원 내 입학정원과 2008학년도 학교별 학업중단율을 보여준다(2010년 신설학교의 경우는 2009년 기준임). 2010년 7개 학교에 안경광학과가 신설되어 모집인원은 전체 2,874명(정원 내 입학생은 총 2,395명)이다. 이러한 자료는 대학 알리미 사이트, 교육통계사이트와 각각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었다.

2. 안경광학과 증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

최근의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많은 증원에 대한 질의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2010년도의 경우 4년제 대학 안경광학과 유보정원 140명(정원반납분 30명, 유보정원 110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동일지역 전문대학(3년제)에 배정한 것이다. 4년제 대학의 신청이 없어서 3년제 대학 5곳으로 배정하였다”. 이는 증원 인원이 과도하다는 지적³⁾을 피할 수 없는 숫자이며, 4년제 대학이 유치하지 않은 정원반납분 인원과 유보인원의 재배정은 인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배치된다.

3. 안경광학과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백서(1999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의료기사의 인력수급에 대하여 “안경사 등 의료기사 인력의 향후 수급 비교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공급규모 및 수요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적

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이를 바탕으로 보면 최근의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원은 공급이 과다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과 배치되며, 2년제,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학제에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는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안경사의 공급현황

Table 3은 보건복지백서를 통하여 얻은 자료이며, 연차별 안경면허 취득자 수를 제시한 것이다. 1989년과 1990년을 제외한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안경사 면허 취득률은 59%이며, 2000년대만 보면 평균 취득률은 61.75%이다. 안경사 면허 취득자 수는 2000년도에 2만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도에는 3만명을 초과하였고 2009년에는 3만2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5. 안경사의 미래 공급예측

Table 4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안경광학과 모집정원, 모집정원의 증가수와 채용시자를 포함하여 예측한 공급 예상 안경사수를 보여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면허 취득률은 62.3%이고,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평균 졸업률은 74.1%이고 졸업한 학생 가운데 취업률은 82.3%이고 취업의 전공일치율은 90.2%이다⁵⁾. 손실인력은 해외이주자, 군휴학, 타 직종 이직, 사망, 은퇴 등을 포함하여 20%로 산정하였으며, 안경광학과의 모집인원 중에서 등록인원을 예측하여 추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총 모집인원은 2,650명(정원 외 포함)에 등록인원은 2,292명으로 등록인원 비율을 86.5%로 하였고, 모집인원은 매년 87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정원 외 입학인원은

Table 2. The total number of entrance student in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University (college)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DaeGu Health	80	80	8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Daejeon Health	-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Gwangju Health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ongnam Health	-	-	-	40	40	40	40	80	80	80	80	80	80	80
Seoul Health	-	-	-	-	40	8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Shinheung Health	-	-	-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Wonkwang Health	-	-	-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KimCheon	-	-	-	-	-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DongKang	-	-	-	-	-	80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aSan	-	-	-	-	-	-	80	80	80	80	80	80	80	80
Daegu Ploytechnic	-	-	-	-	-	-	-	80	80	80	80	80	80	80
Yeongdong	-	-	-	-	-	-	-	-	-	-	40	40	40	40
Jeonbuk Science	-	-	-	-	-	-	-	-	-	-	80	80	80	80
Keukdong College	-	-	-	-	-	-	-	-	-	-	80	80	80	80
Seoul National Technology	-	-	-	-	-	-	-	-	-	-	-	-	-	-
Chodang	-	-	-	-	-	-	-	-	-	-	-	-	-	-
Daebul	-	-	-	-	-	-	-	-	-	-	-	-	-	-
Yeoju	-	-	-	-	-	-	-	-	-	-	-	-	-	-
Busan Women's	-	-	-	-	-	-	-	-	-	-	-	-	-	-
Cheongam	-	-	-	-	-	-	-	-	-	-	-	-	-	-
Kyungwoon	-	-	-	-	-	-	-	-	-	-	-	-	-	-
Cheju Tourism	-	-	-	-	-	-	-	-	-	-	-	-	-	-
DongA In Jae	-	-	-	-	-	-	-	-	-	-	-	-	-	-
Gwangyang Health	-	-	-	-	-	-	-	-	-	-	-	-	-	-
Sunghwa	-	-	-	-	-	-	-	-	-	-	-	-	-	-
Busan Information Technology	-	-	-	-	-	-	-	-	-	-	-	-	-	-
Kyongbuk Science	-	-	-	-	-	-	-	-	-	-	-	-	-	-
Konyang	-	-	-	-	-	-	-	-	-	-	-	-	-	-
SungDuk	-	-	-	-	-	-	-	-	-	-	-	-	-	-
KunDong	-	-	-	-	-	-	-	-	-	-	-	-	-	-
KyungDong	-	-	-	-	-	-	-	-	-	-	-	-	-	-
KaYa	-	-	-	-	-	-	-	-	-	-	-	-	-	-
Far East	-	-	-	-	-	-	-	-	-	-	-	-	-	-
Choonhae	-	-	-	-	-	-	-	-	-	-	-	-	-	-
Baekseok	-	-	-	-	-	-	-	-	-	-	-	-	-	-
DongShin	-	-	-	-	-	-	-	-	-	-	-	-	-	-
Taekyeung	-	-	-	-	-	-	-	-	-	-	-	-	-	-
Gimhae	-	-	-	-	-	-	-	-	-	-	-	-	-	-
Taegu Science	-	-	-	-	-	-	-	-	-	-	-	-	-	-
Myungshin	-	-	-	-	-	-	-	-	-	-	-	-	-	-
Eulji	-	-	-	-	-	-	-	-	-	-	-	-	-	-
Baekseok Culture	-	-	-	-	-	-	-	-	-	-	-	-	-	-
Kangwon National	-	-	-	-	-	-	-	-	-	-	-	-	-	-
Yangsan	-	-	-	-	-	-	-	-	-	-	-	-	-	-
Sunlin	-	-	-	-	-	-	-	-	-	-	-	-	-	-
Chunnam techno	-	-	-	-	-	-	-	-	-	-	-	-	-	-
Daegu technical	-	-	-	-	-	-	-	-	-	-	-	-	-	-
Chung Cheong	-	-	-	-	-	-	-	-	-	-	-	-	-	-
shinsung	-	-	-	-	-	-	-	-	-	-	-	-	-	-
Catholic Daegu	-	-	-	-	-	-	-	-	-	-	-	-	-	-
Total	80	160	240	360	400	740	900	1,040	1,040	1,040	1,240	1,240	1,240	1,240

Table 2. Continued

University (college)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Discontinue ratio (%)
DaeGu Health	160	160	160	160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5.2
Daejeon Health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64	4.7
Gwangju Health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64	6.0
Dongnam Health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80	80	80	5.8
Seoul Health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4.6
Shinheung Health	80	80	80	80	76	76	76	76	76	76	76	76	76	4.4
Wonkwang Health	80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8.0
KimCheo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5	6.9
DongKang	100	100	100	95	95	90	80	80	80	80	64	64	64	11.0
MaSan	80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9.5
Daegu Ploytechnic	80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3.9
Yeongdong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3.7
Jeonbuk Science	80	80	80	80	80	80	80	90	90	90	90	90	90	7.0
Keukdong College	-	8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13.7
Seoul National Technology	-	80	80	80	80	80	80	70	70	70	70	70	70	2.9
Chodang	-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50	14.7
Daebul	-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12.3
Yeoju	-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8.1
Busan Women's	-	40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9.1
Cheongam	-	80	80	80	64	64	64	64	64	64	64	64	64	4.0
Kyungwoon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11.7
Cheju Tourism	-	-	-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13.2
DongA In Jae	-	-	-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12.7
Gwangyang Health	-	-	-	-	40	40	40	40	40	40	40	40	40	7.5
Sunghwa	-	-	-	-	-	50	50	50	50	50	50	50	50	7.0
Busan Information Technology	-	-	-	-	-	40	40	40	40	40	40	40	40	3.7
Kyongbuk Science	-	-	-	-	-	40	40	40	40	40	40	40	40	14.9
Konyang	-	-	-	-	-	-	40	40	40	40	40	40	40	5.7
SungDuk	-	-	-	-	-	-	40	40	40	40	40	40	40	11.4
KunDong	-	-	-	-	-	-	-	-	30	40	40	40	40	61.6
KyungDong	-	-	-	-	-	-	-	-	30	30	30	30	30	12.0
KaYa	-	-	-	-	-	-	-	-	30	30	30	30	30	8.2
Far East	-	-	-	-	-	-	-	-	30	30	30	30	30	8.8
Choonhae	-	-	-	-	-	-	-	-	30	30	30	40	40	2.9
Baekseok	-	-	-	-	-	-	-	-	30	30	30	30	30	5.5
DongShin	-	-	-	-	-	-	-	-	-	30	30	30	30	15.4
Taekyeung	-	-	-	-	-	-	-	-	-	30	30	30	30	10.5
Gimhae	-	-	-	-	-	-	-	-	-	60	60	60	60	3.9
Taegu Science	-	-	-	-	-	-	-	-	-	30	30	30	30	11.4
Myungshin	-	-	-	-	-	-	-	-	-	-	30	30	30	25.6
Eulji	-	-	-	-	-	-	-	-	-	-	70	70	70	4.6
Baekseok Culture	-	-	-	-	-	-	-	-	-	-	-	30	30	8.6
Kangwon National	-	-	-	-	-	-	-	-	-	-	-	25	25	6.0
Yangsan	-	-	-	-	-	-	-	-	-	-	-	-	30	9.5
Sunlin	-	-	-	-	-	-	-	-	-	-	-	-	25	5.0
Chunnam techno	-	-	-	-	-	-	-	-	-	-	-	-	30	8.5
Daegu technical	-	-	-	-	-	-	-	-	-	-	-	-	30	20.7
ChungCheong	-	-	-	-	-	-	-	-	-	-	-	-	20	10.3
Shinsung	-	-	-	-	-	-	-	-	-	-	-	-	30	7.1
Catholic Daegu	-	-	-	-	-	-	-	-	-	-	-	-	30	5.7
Total	1200	1660	1780	1855	1811	1856	1926	1926	2106	2266	2190	2255	2395	

Table 3. The number and rate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an optician license

	Candidate numbers	Passing numbers	Passing rate(%)	Total (number)
2009	2,569	1,451	56.5	31,952
2008	2,508	1,620	64.6	30,332
2007	2,321	1,435	61.86	28,712
2006	2,391	1,441	60.3	27,417
2005	2,161	1,352	62.6	26,001
2004	1,779	1,070	60.2	24,652
2003	2,314	1,457	63.0	23,615
2002	1,921	1,210	63.0	22,564
2001	1,810	1,141	63.0	21,308
2000	1,740	1,085	62.4	20,168
1999	1,606	868	54.1	19,305
1998	1,791	1,224	68.3	18,220
1997	1,771	1,050	59.3	16,995
1996	1,985	1,273	64.1	15,946
1995	1,798	851	47.3	14,671
1994	1,896	1135	59.9	13,819
1993	1,654	672	40.6	12,682
1992	1,721	604	35.1	12,018
1991	2,612	1,147	43.9	11,627
1990	11,774	9,065	77.0	10,260
1989	1,535	1,281	83.5	1,281

300명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면허 시험 응시자는 졸업생 수와 매년 688명의 응시자들의 합으로 예측을 하였다.

6. 안경사의 수요예측

통계청 자료에 의하며 2007년 안경소매업수는 7,058개, 종사자 수는 14,589명, 2006년 6,898개, 종사자 수는 14,176명, 2005년 6,609개, 종사자 수 13,446명으로 매년 종사자 평균 증가는 약 522명이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에 신규 면허 취득자의 수는 7,404명이다. 따라서 신규 면허 취득자의 안경소매업으로의 취업률은 39%이다. 또한 신규 면허 취득자의 취업이 안경원이 아닌 종합병원, 안과병원, 광학기기업체, 안경, 콘택트렌즈 제조 관련업체 등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안경면허 취득자들의 취업률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2009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안경원의 종사자는 대략 20,73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⁸⁾. 이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결과들과는 다른 안경원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결 론

1. 공급현황의 문제점

매년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은 약 8.5%씩 증가되어 왔으며 정원 외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Table 4. The estimated number of the total licenced persons

Year	Registration Numbers (person)	Graduate student (person)	Employment student (person)	Postgraduate study agreement for employment (person)	A qualified person	Total licensed person	Populations/ Total licensed person	Availability man Power	Percent of real employment
2010	2486	1842	1522	1400	1614	33566	1456	26853	17,720
2011	2576	1909	1577	1451	1657	35223	1391	28178	18,718
2012	2667	1976	1632	1501	1700	36923	1329	29538	19,738
2013	2757	2043	1688	1553	1743	38666	1272	30933	20,779
2014	2859	2119	1750	1610	1792	40458	1217	32366	21,843
2015	2949	2185	1805	1661	1835	42293	1165	33834	22,929
2016	3039	2252	1860	1711	1878	44171	1116	35337	24,035
2017	3130	2319	1916	1763	1920	46091	1070	36873	25,163
2018	3219	2385	1970	1812	1963	48054	1027	38443	26,314
2019	3310	2453	2026	1864	2007	50061	986	40049	27,486
2020	3400	2519	2081	1915	2049	52110	947	41688	28,680

평균 3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증원의 배경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안배와 2005년 인력수급(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한 수급정책에 따른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백서(1999년부터 2007년)^[6]에서 의료기사들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과 달라서 동일 부처 내에서 제시하는 자료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작 책임져야 할 의료기사의 인력 추계의 정책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안경사인력수급 보고서(보건사회연구원)는 손실안경사부분에서 은퇴율 산정의 문제,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기준의 모호함, 명확하지 않은 해외 이주율, 의료가중치에 의한 필요안경사 문제, 취업률, 공급인원 산정에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9]. 그 예로 2005년 공급인원을 기준으로 2008년 공급인원을 2,130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안경광학과 정원 외를 포함한 모집인원은 2,650명이며, 안경사 가용인원을 2007년 14,007명으로 예측하였으나 2007년 한국직업전망 보고서^[10]에서는 안경종사자 수를 17,397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내포한 보고서를 제작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 현재 국시원에서 발주한 “의료기사의 수요공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안경사의 수요 예측을 위한 안경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여야 하는데 안과의사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측을 한 다니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공급 인원수를 기준으로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안경광학과 교원 수 140명(147명), 학생 수 8,007명(8,332명), 교원 1인당 학생 수 58명(57명)으로 기준(20명)에 비하여 2.85배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다^[11]. 이는 안경광학과 인가대학의 급속확대에 따른 대학의 학과운영에 대한 준비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이며 교수요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년지계의 교육에 있어서 입학정원의 증원이 수반되는 충분한 교육여건의 마련이라는 기준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2. 공급예상

외국 안경사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2007년 안경사 1인당 인구비는 2,152명이고^[12], 미국의 2006년 안경사 1인당 인구비는 4,527명이며^[13], 한국의 2007년 안경사 1인당 인구비는 1,715명이다^[14]. 이를 비교하면 한국의 안경사 수는 미국의 2.62배, 독일의 1.23배로 과잉 공급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안경사의 과잉공급은 개설 안경원 수를 증가(2002년 이후 매년 약 200개씩 증가)시키며 안경원의 과

당경쟁을 부추겨 결국 안경원의 수익을 저하와 함께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3.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실제 종사자수와 안경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경사의 실태와 취업현황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15] 그 실태와 취업사항 등의 신고결과는 그 내용이 빈약하여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안경원수, 종사하는 안경사수, 은퇴연령, 이직률과 같은 정확한 자료가 전제조건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안경원의 취업률은 39%에 불과하여 안경사가 안경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 분산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안경원의 근무여건, 임금 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안경소매업의 경우 매년 종사자의 평균 증가는 약 522명이다. 하지만 안경사 면허 취득자 수는 약 1,50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경업의 법인화와 비안경사의 안경원 개업 가능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안경사들과 법인화를 통하여 대규모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안경업계의 안경원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안경원의 외형적 크기만 커진다고 안경사들의 취업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4. 과잉배출에 따른 문제점

안경사의 한국직업 표준분류에 의하면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직종에 포함되어 의료기술종사자로 되어 있으며, 한국고용 직업분류에 의하면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직종에 포함되어 기타 보건의료관리직에 분류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직업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주당작업시간은 평균 67시간, 소규모 사업체 비율은 95.5%로 보고하고 있다^[16]. 또한 2003년 결과도 근무환경의 만족도, 직업적 긍지에 대하여 매우 낮은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또한 “의료기사 인력의 경우에는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공급규모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17], 보사연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건 의료인력은 양성, 배출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과다배출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1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과 2006년의 한국 안경소

Table 5. The regional entrance student number and population

Region	University (College)	Entrance Number (person)	Population (2010 year)	Entrance Number /Population
Gangwon	Kangwon National	25	1,466,236	15,434
	Kyungdong	30		
	Yeongdong	40		
Gyeonggi	Dongnam Health	80	11,632,140	43730
	Shinheung Health	76		
	Yeoju	40		
	Eulji	70		
Gyeongnam	Kaya	30	3,127,970	16,999
	Gimhae	60		
	Masan	64		
	Yangsan	30		
Gyeongbuk	Kundong	40	2,590,350	6,728
	Kyongbuk Science	40		
	Kyungwoon	80		
	Kimcheon	100		
	Taekyeung	30		
	Sunlin	25		
	Sungduk	40		
	Catholic University	30		
Gwangju	GwangJu Health	64	1,466,236	11,825
	Dongkang	64		
Daegu	Daegu technical	30	2,443,726	9,697
	Taegu Science	30		
	Daegu Health	128		
	Daegu Ploytechnic	64		
Daejeon	Konyang	40	1,515,110	14,568
	DaeJeon Health Sciences	64		
Busan	Busan Women's	64	3,421,217	32,896
	Busan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40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70	10,019,280	143,133
Ulsan	Choonhae	40	1,075,239	26,881
Jeonnam	Gwangyang Health	40	1,759,483	4,150
	Daebul	60		
	Dongbhin	30		
	Dong A In Jae	40		
	Myungshin	30		
	Sunghwa	50		
	Suncheon Cheongam	64		
	Chunnam Techno	30		
	Chodnag	80		
Jeonbuk	Wonkwang Health	64	1,710,608	11,108
	Jeonbuk Science	90		
Jeju	Cheju Tourism	40	537,619	13,441
Chungnam	Baekseok	30	1,954,981	21,722
	Baekseok Culture	30		
	Shinsung	30		
Chungbuk	Far East University	30	1,466,236	12,861
	Keukdong College	64		
	Chungcheong	20		
Total		2395	48,874,539	

매업의 이익률은 약 20%정도이다^[18].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안경사들의 배출은 많은 안경원의 개업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안경원은 6,530개에서 4,290개로 축소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다^[19].

Table 5에서는 2010년도 안경광학과 모집인원과 지역인구와의 비를 보여준다. 인구예측은 통계청의 인구예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남, 경북지역에서 안경광학 모집인원/인구비가 만명 이하이다. 특정지역에 모집인원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에 광주, 대구, 제주도에서 각각 41개, 43개, 36개의 안경원이 감소하였다^[20]. 지역적으로 안경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북지역에 2곳, 전남 지역에 1곳이 증설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모형에서도 안경사의 임금수준 Low, 직업위상 Very-Low라고 보고하고 있다^[21]. 그리고 2007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안경사 근무 현황에 대하여 “대부분 1~2명의 안경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보통 교대 없이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주일에 1일정도 만 휴식을 취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안경원의 포화상태에 따라서 안경원의 과당경쟁으로 안경사의 수익은 감소하고 매년 2천명에 달하는 안경사가 배출되고 있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나 보수 등의 근무조건의 불만으로 이전직하는 안경사가 많기 때문에 대체고용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고용주의 인건비 절약차원으로 신규 배출된 안경사의 고용을 선호 하고 있어 신규인력의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이다. 여기에는 안경사의 직무만족도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야하는 대한안경사협회의 책임이 크다. 안경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대한안경사협회이기 때문이다. 협회 이사진은 대부분 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이므로 안경원에 종사하는 안경사들의 처우를 대변하기란 어렵겠지만 안경사 모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야 하겠다.

2007년, 독일 안경원수 10,016개, 종사자 38,464명이고 한국 안경원수 7,058개, 종사자수 14,589명이다^[22]. 양국간 GDP 규모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독일의 경우 총 매출액이 6조 5천억원 정도, 한국의 경우 1조 정도이다^[23]. 인구수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 안경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안경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임금 향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안

경원수와 안경사의 배출인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2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된 직무영역으로 인하여 안경원 사이에 차별화를 주지 못하여 가격적인 과당경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쟁을 줄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직무영역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안경사의 직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2, 3, 4년 학제로 분리되어 있는 학제를 4년으로 통일하여 배출되는 안경사의 질적 수준 통일과 직무영역 확대를 함께 추진해 가는 방안이 우선 중요하겠다.

2009년 9월 15일 대한안경사협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한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안경사 면허갱신 제도 채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3항 처분 규정 개정”, “불법 전자상거래 근절”, “안경관련 제품의 안경원 판매 당위성”, “보수교육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은 안경사의 직무영역 확대와 직무만족도 향상, 근로여건 개선,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들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경사 공급 인원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관 기관들이 공유해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안경 유관 기관의 결집력을 다지고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원 등의 사안에 대한 대정부 의견 개진력도 향상 시켜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오영호, “정책현안자료 2007-03,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자율화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2(2007).
- [2] 전문대학정책과, “안경광학과 입학정원 문의”, 교육과학기술부(2009.07.29).
- [3] 마기중, 이학준, 이종훈, 이해정, “안경사의 인력수급전망”, 대한시과학회지, 3(1):25-38(2001).
- [4] 김상현, 임용무, “안경사인력 수급 및 관리 제도 개선방안”, 한국안광학회지, 12(4):9-14(2007).
- [5] 김상현, 임용무, “의료기사 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안광학회지, 12(4):25-30(2008).
- [6] 보건복지가족 백서, 보건복지가족부, pp. 528(2007).
- [7] 대학알리미 사이트, 교육통계연감,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자료(2009).
- [8] “2009 안경원 규모 · 월매출 총조사”, 한국안경신문, 300호(2009).
- [9] 오영호, “의료기사 인력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74-81(2005).
- [10] 2007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pp. 265-267(2007).
- [11] 교육통계연구센터, “안경광학과 정원에 대하여”, 교육통계연감 요청자료(2009. 09. 11).
- [12] “Barnchenbericht Augenoptik 2008”, ZVA (2009).

- [13]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11 Edi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http://www.bls.gov/oco/ocos098.htm>) 295(2006).
- [14]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시도/산업별 총괄, 안경소매업 (2007). [17] 신의균,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 가정의학회지, 25(11):372(2004).
-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 행정 제 8조. [18] 통계청 자료, 시도/산업별 총괄, 안경소매업(2007).
- [16] 한상근, 박천수, 이동일, 정윤경, 최동수, 정향진, 이주호,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205-265, pp. 294-295(2006). [19] 서제일, Kiet 실물경제, pp. 55-57(1996).
- [20] "전국안경원 7,834개", 한국안경신문, 200호 (2007).
- [21] 박천수, 이상돈, 김미란,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모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191(2006).

The Problem and Solution Associated with Increasing Numbe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

Sang-Hyun Kim and Yongmoo Lim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Korea
(Received October 31, 2009: Revised March 2, 2010: Accepted March 19, 2010)

Purpose: We have studi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creased numbe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and its effect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optician. **Methods:** We collected data from Education Statistics, a white paper of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cademyinfo web site and University (College) web site. **Results:** We forecasted an estimate for supply and demand of optician using the entrance number of ophthalmic optics. **Conclusions:** The numbers of produced optician are in excessive supply. The excessive supply of optician can contribute towards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and lower job satisfaction of an optician. Therefore this can result infrequent turn over of jobs within the same field and migration into the different field of ar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need to act with the manpower policy of government by gathering the voices of the related optician agencies. Then expansion of job domain, improvement of quality level,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for optician can be accomplished by the unification of university system and reduction of entrance numbers for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Key words: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Optician, Entrance number, Demand and supply